



조간 제7958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음력 9월 17일)

전남,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첨단산업 유치 '탄력'

해남·영암에 데이터센터 유치...지역내 생산·소비 연계
인공지능 기반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기술도 실증 예정
도, 첨단기업 투자유치 속도...‘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전남도 전 지역이 국내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으로 최종 확정됐다. 에너지를 사용할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 체계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많은 첨단 에너지산업 유치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5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주재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전국 최초로 전남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확정(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에너지위원회에서 지난 5월 최종 후보지에 오른 7곳을 심의한 결과 전남(전역)을 비롯해 제주(전역), 부산(강서), 경기(의왕) 등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로 최종 확정했다.

이들 4곳은 앞서 최종 후보지 발표 시 ‘신산업 활성화 유형’으로 분류된 곳들이다. 신산업 활성화 유형은 ‘분산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연계하고 특구에 부여되는 특례를 이용해 신산업을 발굴하는 게 주요 골자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에너지를 사용할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른바 ‘지산지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산에너지 특구 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팔 수 있다. 또한 전기요금을 한 국전력과 달리 설정할 수도 있다.

분산 에너지 특구가 되면 ‘지역에서 생산한 값싼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많은 첨단산업 유치가 한결 수월해진다.

태양광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계통 부족으로 출력제어가 빈번한 전남은 이번 특구 선정으로 태양광 발전이 밀집한 해남·영암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지역 내 생산·소비를 연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기술을 실증할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99.6% (호수 기준)가 위치한 배전망에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보급해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물량을 최소화 하면서 배전망 운영을 효율화



‘빅스포(BIXPO) 2025’ 개막 5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BIXPO) 2025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내빈들이 POSCO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에너지로 연결하다’를 주제로 오는 7일까지 열리는 ‘빅스포(BIXPO) 2025’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력·에너지 산업 박람회이다. ▶관련기사 7면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번 특구 선정이 계통포화 문제로 출력제약을 받아온 재생에너지 발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해남 구성지구에는 AI 슈퍼 데이터클러스터 허브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에너지·교육·주거 인프라를 집약한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영암 삼호·삼포지구에는 인근 해상풍력 배후단지와의 연계해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중추적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분산특구 지정을

계기로, 전기가 있는 곳에 기업을 유치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분산특구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강기정 시장 “광주에 ‘NPU전용 컴퓨팅센터’ 설립” 제안

국산 AI반도체 생태계 조성 ‘광주 리더보드’ 선언
국가 AI연구소·AI+모빌리티 신도시 조성도 요청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가 NPU(AI반도체) 전용 컴퓨팅센터’의 설립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남에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대안으로 AI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시장은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미래컨퍼런스-AI 시티와 6G, 한국형 미래도시 포럼’ 기조연설에서 ‘AI 실증도시 광주’ 전략 발표

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NPU(신경망처리장치)는 AI 기능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AI 연산 전문 칩이다. GPU(그래픽 처리장치)가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학습, 고성능 연산에 효과적인 반면, NPU는 GPU로 개발한 AI 서비스에 적합하며 전력 효율이 높아 NPU 산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시장은 “국산 AI반도체, NPU산업 생태계 조성과 대한민국 AI 3강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국산 AI반도체 양산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AI반도체 전문인력을 빠르게 양성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그동안 국가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국산 AI반도체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왔다”며 “국가 NPU(AI반도체)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으로 국산 AI반도체 시장에서 광주가 리더보드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에이직랜드·에임퓨처·퓨리오사·리벨리온 등 25개 AI반도체 팹리스기업과 협약을 맺었으며, 1단계(2023~2024년) 2년간 200억원 규모

NPU 실증 및 검증 사업을 통해 퓨리오사·리벨리온·사파온이 국산NPU를 출시했다. 현재까지 정부 연구개발(R&D)을 지원받아 국산 NPU를 출시한 기업은 10개사다.

또 올해부터 추진하는 2단계(2025~2027년) 400억원 규모의 고도화·상용화 사업에 현재 6개사가 참여해 국산 NPU 기반 AX 축진을 위한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서울미래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을 직접 제안했다.

▶2면에 계속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 농수산물 잘나가네...수출액 역대 최고 9월 기준 6억6429만 달러...‘K-김’ 해외 수출 주도

전 세계적으로 ‘K-김’ 열풍이 불며 김 수출을 필두로 전남산 농수산물식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며 올해 역대 최고 수출액 기록을 달성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도 농수산물 수출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6억 6429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억 7617만달러)보다 15.3% 늘었다.

이는 전국 증가율(8.2%)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품목별로 수산식품은 4억2163만달러로 지난해보다 18.1% 증가했으며, 쌀과 배, 파프리카 등 신선 농산물이 7386만달러로 47.3%, 음료와 유자차, 과자류 등 가공식품은 1억741만달러로 8.4% 각각 늘었다.

올해 수출 증가세를 주도한 품목은 전남의 대표 수산물인 김이다. 김 수출액은 3억3744만달러로 지난해보다 22.4% 증가해 수출액이 농수산물식품 전체의 절반 이상(50.8%)을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일본 1억6767만달러로 11.1%, 미국 1억2095만달러로 11.8%, 중국 1억314만달러로 15.7%, 대만 3294만달러로 3.9% 등 주력시장에서 고르게 증가했다. 특히 중국으로의 김 수출은 87.6% 증가해 전체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또 필리핀 118.8%, 태국 43.7%, 폴란드 34.3%, 네덜란드 21.2% 증가 등 신남방·유럽 국가와의 교역도 확대되며 시장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의 핫플

백운광장 미디어월

매일 07:00 ~ 22:30

실감콘텐츠
매 시각 정시를 알려주는 백운호랑이가
마치 화면을 뚫고 나올 듯한 AI+모픽 콘텐츠

가족사랑 회복의 시간
가족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참여 문의 : 남구청 홍보실 062-607-3752

미디어아트
지역 작가부터 글로벌 유명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갤러리

공익광고
공공기관의 지역 행사, 축제, 관광홍보 등 정보제공
광고문의 : 062-650-2070

구청 홍보
남구 소식 및 구정 주요 사업 홍보

인터랙티브 체험
AR캐릭터(호랑이, 천사)와 체험자가
화면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콘텐츠